

# 전남 농가소득 4368만원...코로나 이후 11% ↑

### 코로나 전후 전남 농가소득 변화...농업소득 1014만원 14.8% ↑ 공적·사적보조금, 재난 지원금 지급에 1574만원...28.3% 증가

코로나19가 강타한 지난해 전남 농가소득은 재난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전후 전남지역 농가소득 변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농가소득은 4368만원으로, 전년(3932만원)보다 11.1%(436만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 농가소득 증가율(11.1%)은 전국 9.3%보다 1.8%포인트 높다.

지난해 전남 농가소득 가운데 이전소득이 1574만원으로 36.0%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농업외소득(1524만원·34.9%), 농업소득(1014만원·23.2%), 비경상소득(255만원·5.8%)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농업을 해서 얻는 농업소득(1014만원)은 전년(884만원)보다 14.8%(131만원) 증가했다. 농업소득은 전년보다 농업경영비가 146만원(6.7%) 증가했으나, 농업총수입이 277만원(9.0%) 증가하며 전년보다 131만원(14.8%) 증가했다.

전남 농업소득의 전년 대비 증가율(14.8%)은 전국 15.2%보다 0.4%포인트 낮다.

지난해 전남 농업소득은 경남(938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경북이 165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은 1182만원이었다.

전남 농업소득은 지난 2018년부터 3년 연속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공적 보조금(농업보조금·공적연금·수당)과 사적 보조금(출타가족보조금·친인척보조금)을 포함한 이전소득은 1574만원으로, 전북(1594만원)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공적 보조금 역시 전북이 151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150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남 공적 보조금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나오면서 전년(1157만원)보다 29.7%(344만원) 증가했다.

통계를 낸 지난 2003년 이후 전남 공적 보조금은 가장 크게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전남 공적 보조금 증가율은 지난 2005년(29.1%)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전남 농업경영비는 2337만원으로, 전년(2191만원)보다 6.7%(146만원) 늘었다.

전남 농업경영비 증가율(6.7%)은 전국 평균(0.2%)보다 6.5%포인트나 높다.

전남 농업인들은 경영비 절반 이상(53.6%)을 경비로 썼다. 경비에 이어 재료비(39.8%), 노무비(6.6%) 등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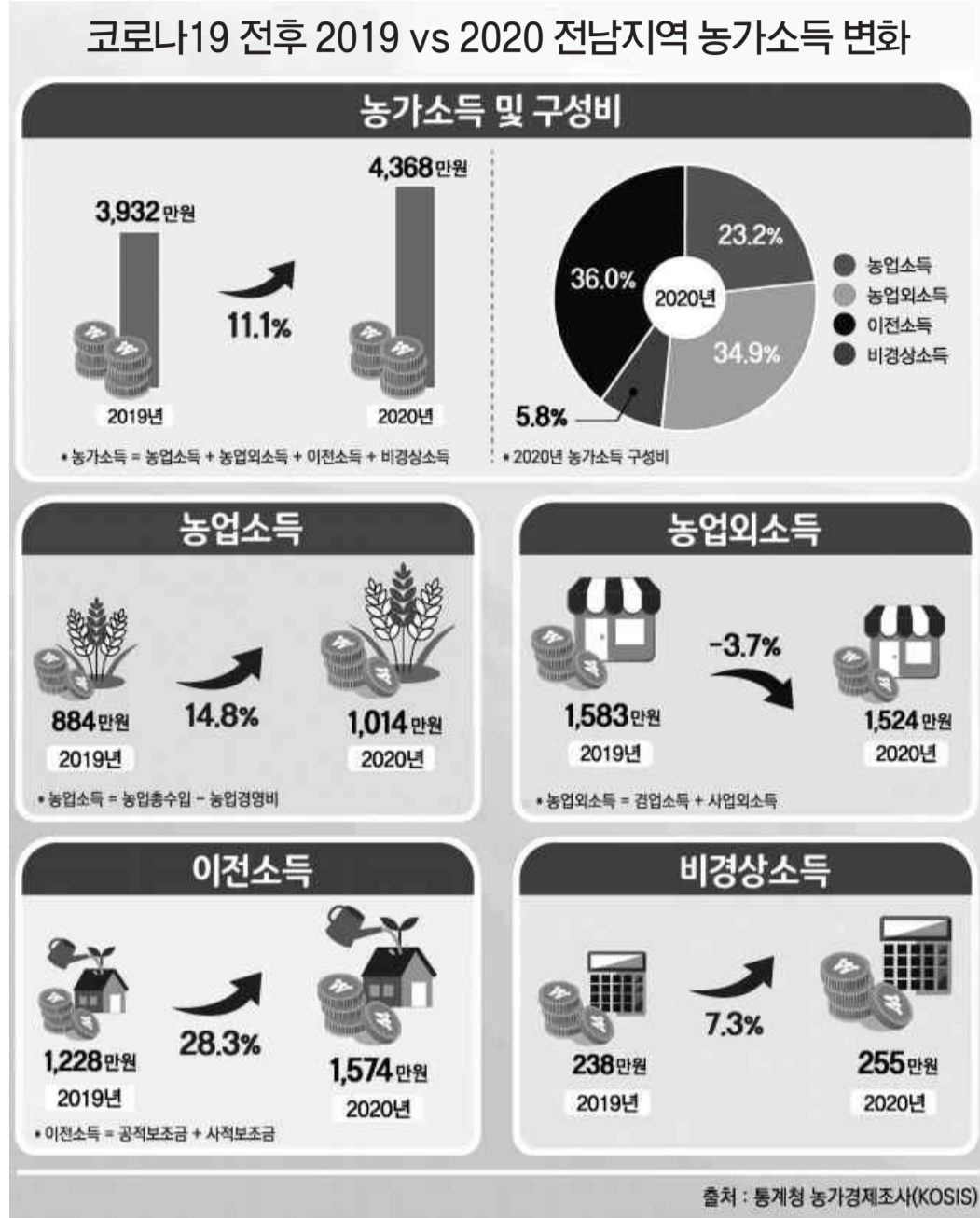
지난해 전남 농업 경비는 1252만원으로, 농업보험료 등에서 지출이 늘어 전년보다 22만원(1.8%) 늘었다.

재료비는 931만원으로, 종묘비와 사료비에서 지출이 늘어 전년보다 109만원(13.3%)이나 증가했다.

노무비 역시 전년보다 16만원(11.2%) 증가한 154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농업경영비 가운데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인 항목은 농업부문 보험료였다. 전년 44만4000원에서 아듬해 62만1000원으로 40.0% 올랐다.

사료비는 326만7000원에서 409만6000원으로 25.4% 증가했다. 종묘비(15.6%), 동물비(14.3%), 재료비(13.2%), 노무비(11.1%), 조세 및 부담금(10.2%) 등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스마트팜' 청년 관심 뜨겁다

### 고흥 청년창업 보육센터 52명 모집에 132명 몰려

고흥에 있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모집에 132명이 몰려 2.5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창업 교육생 208명을 최근 선발했다고 밝혔다.

선발된 교육생은 고흥과 전북 김제, 경북 상주, 경남 밀양에 있는 보육센터별 52명으로, 총 208명이 교육을 받게 된다.

지난 4월28일부터 5월31일까지 18세 이상~39세 이하의 청년을 모집한 결과 208명 모집에 625명이 지원해 3.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종 선발된 교육생의 평균 연령은 30.4세로 지난해 평균 연령보다 1.2세 낮아졌다. 신청자 성별 비중은 남성 78.4%, 여성 21.6%다.

교육 희망 품목은 딸기 47.1%로 가장 많았고 토마토 23.1%, 딸론 8.2% 등이 뒤를 이었다.

농업 외 전공 비중은 78.8%였으며 이중 이과가 37.5%, 문과가 29.8%, 기타(고졸, 예체능 등)가 11.5%였다.

교육생은 지역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최대 1년 8개월간 교육을 받는다.

교육과정은 입문교육, 교육형 실습, 경영형 실습으로 이뤄진다.

수료생에게는 스마트팜 창업에 필요한 혁신밸리 임대농장 입주 우선권(수행 실적 우수자),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청 자격 부여, 농신보 보증비율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팜 장기교육과정은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을 이끌어갈 스마트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들의 농업·농촌 분야 유입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업기를 마련 노력 감사합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왼쪽 두번째)는 지난 23일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아 100년 농업의 기틀 마련과 농업농촌을 위해 애써온 장흥지역 고령 농업인 이세근씨의 건강을 기원하고 선물을 증정했다. 전남본부는 오는 8월15일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고령 농업인 21명에 감사 선물을 전할 계획이다. <전남농협 제공>

## "가을 보리·호밀 정부 보급종 신청하세요"

### 9월 14일까지 1~2차 접수

국립종자원은 올해 가을 파종용 보리, 호밀 정부 보급종 중자 10품종 1107t을 일반 농가에 공급한다.

공급 품종과 물량은 보리 9품종 982t, 호밀 1품종(곡우) 125t으로 나뉜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465t), 충남(139t), 전남(132t), 경북(108t), 경남(99t), 경기(88t), 강원(46t), 충북(30t) 등 순으로 많다.

전남 공급 물량은 쌀보리 126t(흰찰쌀 102t·새쌀 24t), 호밀 6t 등으로 구성됐다.

농가는 지정된 신청 기간(1차 7월21일~8월31일, 2차 9월1~14일)에 시·군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순으로 신청하면 지역 농협에서 받을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에는 시·도 단위로 지역별 신청 가능한 품종이 정해져 있고 잔여 품종 물량에 대해서

는 2차 신청 기간 지역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공급종 보급 기간은 오는 9월13일부터 10월8일까지다. 농업인이 선택한 지역농협으로 수송되고 중자 대금은 지역농협에서 보급종을 받은 후 납부하면 된다.

보리 중자 공급 가격은 20kg 1포 기준 ▲갈·청보리 품종 소독 제품 2만840원·미소독 제품 1만9500원 ▲쌀보리 품종 소독 제품 2만2620원·미소독 제품 2만1280원이다. 국립종자원 측은 차, 식해 등의 재료로 사용되는 겉보리, 보리밥 등에 활용되는 쌀보리 등 지속적인 수요를 반영해 중자생산 투입원가의 90%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호밀은 곡우 품종 미소독 제품만 공급되며, 공급 가격(20kg 1포)은 3만9440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종자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54-912-0187)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sup>2</sup>
- 건 물 : 411 m<sup>2</sup>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540,000,000원

상담 010-3733-3933